



제생의세

원광대학교병원 소식을 더 빠르게 만나기

- 홈페이지 www.wkuh.org/
-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kuh203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wkuh2030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wkuh_org/
- YouTube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을 검색하세요

제 313호 2024년 7월 1일 (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또 하나의 호남 최초” 원광대학교병원, 최첨단 디지털 PET/CT 가동



- 암·치매·파킨슨증후군·심장질환 조기 정밀진단 가능
- 적은 방사능 투여와 CT 선량 감소로 방사선 피폭량 크게 감축
- 촬영 시간 단축으로 환자 불편함 개선

원광대학교병원 핵의학과는 핵의학 검사 영상 장비인 최신행 디지털 PET/CT (Biograph Vision 600)를 도입해 가동한다. 이는 호남권 대학병원 중 최초 도입이다.

이번에 도입한 PET/CT 장비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기능적 상태를 반영하는 분자 영상과, 해부학적 영상인 CT를 함께 촬영하는 융합영상장비로 각종 암 질환, 뇌 질환

환 그리고 심장 질환 등의 진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광전자증배관을 이용한 기존의 아날로그 PET/CT 장비들은 섬광체에서 발생한 광자의 검출 위치를 판명하는 데 오차가 있었던 반면에, 최신행 디지털 PET/CT 장비인 Biograph Vision 600은 더 작은 크기의 크리스탈과 반도체 기반의 SiPM 검출기를 이용해 광자의 검출 위치를 거의 일대일 신호로 전환할 수 있어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PET/CT 장비에 비해 훨씬 작은 크기의 병변을 찾아낼 수 있고, 주변의 정상조직 등과 병변을 구분하기 용이해져 진단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또한 같은 수준의 영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방사성의약품의 투여량이나 촬영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감축하고 검사 소요 시간으로 인한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응급의료체계 강화' 원광대학교병원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지난 25일 도내 주요 응급의료 현장 점검과 기관장 만남, 응급의료 현장 인력 격려, 소통과 교류를 통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원광대병원을 방문한 이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원활한 환자 이송 및 수용 현황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고압 산소치료실, 닥터헬기장 등 주요 응급의료 자원 시설을 점검하며 응급의료현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서일영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들과 응급의료상황 발생에 따른 구급 업무, 의료기관 화재 발생 시 환자, 내원객 및 상주 직원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진단검사의학과 노미숙·이미자 임상병리사, 헌혈자의 날 표창 수상



진단검사의학과 노미숙 책임기사 수혈관리실 이미자 주임기사

원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노미숙 책임기사와 수혈관리실 이미자 주임기사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헌혈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각각 혈액관리본부장상과 전북혈액원

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수상한 표창은 매년 6월 14일 헌혈과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노미숙·이미자 병리사는 "그동안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수혈 시 부작용 최소화화 ABO type 및 Cross Matching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들이 인정돼 이번에 표창을 수상했다"며 "어렵게 헌혈된 혈액의 폐기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왔던 공로로 혈액관리본부장상, 전북혈액원장상을 수상하게 돼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외 전북권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외 전북권 4개 기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민·관 공동협력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은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9,640만 명으로, 약 1억 명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교류를 통한 전북 해외

관광 마케팅의 원년으로 삼고자 체결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원광대병원을 비롯,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주대 태권도학과 태권공연팀 싸울아비 등 총 6개 기관이 참석했다. 원광대병원은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유, 한방, 웰니스 의료 관광거점 병원으로 건강여행 콘텐츠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동 세미나 개최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경기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난 3일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장

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미래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방향에 대한 흐름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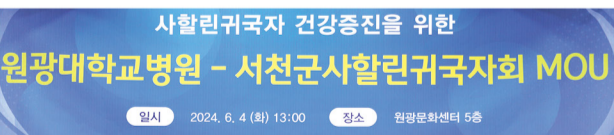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권역 구급대원 위한 세미나 운영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권역 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심뇌혈관질환 증상의 조기 인식 및 응급처치 능력

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병원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이송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개선하여 병원 전 단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북권역 구급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1년을 시작으로 총 97회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권역 내 신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전북권역 구급대원 세미나 기본 과정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심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 서천군 사할린귀국자회 두 손을 맞잡은 MOU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4일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해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서천군 사할린귀국자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날 따뜻한 두 손을 맞잡고 MOU를

체결한 사할린귀국자회는,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돼 살아가던 사할린 동포 57세대 98명이 지난 2010년 재외 동포청의 노력으로 영주 귀국해 서천군에 정착하고 있는 원불교 서천교당 교도들이다. 원불교 서천교당에서 동포 어르신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고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웃음과 행복 마음공부" 프로그램 재능 기부에 서천교당 최성정 교무가 강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중앙총부 성지 순례와 미륵사지, 원광효도마을, 원광대학교 탐방을 기회로 노후 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원광대병원 탐방을 마치고 의료적 지원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

서일영 병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챌린지 동참



원광대학교 병원 서일영 병원장이 지난 31일 범국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의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릴레이 방식의 범국민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이다. 지난해 3월 ‘ESG 경영’을 선포했던 원광대학교병원은 친환경 경영, 환경 중심 공급망 구축, 의료폐기물 줄이기,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 탈 플라스틱과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캠페인은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친환경 실천의 각오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과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을 지목하였다.

원광대학교병원, 노·사 공동으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024년 1/4분기 노사 협의에 따라 교직원 휴게실을 개선해 확대, 개소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3일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 보직자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터를 개소했다. 원광대병원은 직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교직원의 신체적 피로회복과 간단한 휴식으로 업무 중 누적되어 온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 교직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심터인 휴게소는 교직원 간 사회적 상호 작용의 연결고리 역할

할 수 있는 장소이자 다양한 환경을 지닌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분위기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한 심터 휴게소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나 의자, 간단한 음료나 커피 등 간식거리도 제공해 직원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소중한 생명을 보살피는 병원 업무의 특성 상 교직원의 피로회복과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는 환자과 내원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업무의 선순환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 ‘원광 가족의 날’ 행사 개최



원광대학교병원 간호부는 지난 5월 31일 외래동 1관 4층 대강당에서 ‘원광 가족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0년차 이상 간호사들의 부모님 36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병원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은혜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병원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참가자들은

권역 응급센터, 권역 외상센터, 중앙 공급실, 로봇 재활치료실 등을 방문하여 병원의 다양한 시설과 최신 의료 기술을 체험하였다. 또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혈압과 심방세동 측정을 진행하였고, 건강검진센터와 한방힐링센터 방문 후에는 점심이 제공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방문해 직장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원광대학교병원 지정

원광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따른 새싹지킴이병원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에 빠른 판단으로 신속한 보호와 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역 전담의료기관

을 중심으로 지역 전담의료기관 연계 강화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담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새싹지킴이 병원으로써 아동학대 신고 필요성을 알리고 신고 의무자 보호와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의료

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새싹지킴이 병원과 지자체 간 간담회 등을 충실히 진행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7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

하는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어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피해자 보호에 신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171회 WKUH 친절직원



소화기내과 최석채 교수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소화기내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동료 의사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팀 최슬기 사무담당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을 뿐인데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원무팀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탐방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행정직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할

- 지역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수행
- 지역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교육 훈련
- 지역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 지원업무

사업소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 지역장애인등록 관리(장애인등록 및 상담)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지원
- 지역 내 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의 통합적 연계
-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파악 및

관리하여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관 안내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을 위한 1:1 산모교실 운영
-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정신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교육 진행
- 통합사례관리 연계로 다양한 상담 및 자원 연계

• 장애인건강권교육

-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증진 교육제공
- 장애유형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건강관리 교육 제공
-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교육 제공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지원

-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 현황 제공 및 전문재활의료서비스 연계
-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기관에 대한 현황 제공 및 연계
-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인재상과 자부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창의성 또한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추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및 일상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QR코드를 태그해주세요.

백일해 :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



최근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퍼투시스 (*Bordetella pertussis*)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기침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백일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일해란 무엇인가?

백일해는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여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이때가 가장 전염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기침이 심하고 오래가, 백일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백일해 증상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4주 이상 심한 기침 발작이 계속 된다면 백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기침 시작 후 2주가 지나면 숨을 들이쉬는 끝에 '흡'하는 소리가 나는 특징적인 발작 기침을 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으로 밤에 더 흔하고, 하루 평균 15회 이상 발생합니다. 영유아는 기침을 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 있고, 구토를 하거나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기에는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집니다.

백일해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
-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

백일해 예방법은?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에어컨 사용 시 환기 철저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신생아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

역력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관리하며, 급성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현명한 길입니다.

백일해 치료 및 관리

백일해는 주로 항생제 치료를 통해 관리됩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증상의 심각성,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에도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며, 기침을 줄이기 위한 약물도 처방될 수 있습니다.

백일해 합병증과 위험성

백일해는 치료를 시작한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심한 기침으로 인해 흉통, 눈이나 얼굴의 혈관 파열로 인한 멍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숨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 발작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백일해 세균이 폐로 퍼지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중요성

백일해 예방을 위해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DTaP 백신을, 청소년과 성인들은 Tdap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DTaP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5~18개월, 만 46세에 접종하며, Tdap 백신은 만 11~12세에 접종하고 이후 매 10년마다 부스터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영유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온 가족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비롯해 아이를 돌보는 친척, 돌보미,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임산부도 임신 27~36주에 백신을 맞아야 하며, 이는 엄마의 항체가 아직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신생아한테도 전달되어 엄마와 아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기와 주의사항

신생아를 볼 예정인 부모와 친척, 돌보미는 예방접종을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백일해 접종을 한 지 10년이 지난 분들도 다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소아기 DTaP 미접종이거나 접종력이 불분명한 경우, 3회 접종(Tdap·Td)한 후 매 10년마다 Tdap 또는 Td 접종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백일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일해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신생아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2·4·6개월)
 *기초 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이 원칙

만 11세 이후
 10년마다 추가로 접종

가임기 여성
 가능한 한 임신 전에 접종

임신 중 여성
 27~36주 사이에 접종

이 달의 법문

정당한 고(苦) 영원한 낙(樂)

“정당한 고틉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자”



지산 정원도 교무

활동 기간엔 박수를 받으며 붕 떠 있다가 내려오면 또다시 다음을 준비하는 반복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일시적인 것이기에 경계(境界)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여 그 마음의 사용이 선업(善業)이 되도록 수행하며 지속시키고, 반복되는 고틉의 근원을 알아 괴로움도 즐거움도 정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원인이 되어 즐거움이 될 수 있기에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 작용에 따라 고가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원불교 교조)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보아하니 죄고에 신음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기에, 특히 일체중생이 느끼는 고틉의 양

상과 고틉의 원인을 밝혀 누구든지 영원한 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타에 대한 법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 고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정당한 고틉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자. 낙만을 취하려 하지 말고 정당하다면 고 역시 취하라고 하셨고, 부정한 고틉이 오지 않도록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운 고와 즐거운 낙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고틉은 또 다른 고틉으로 이어지니 그 근원을 다스려야 합니다.

온전한 생각은 ‘본래 그 마음’이요, 취사(取捨)는 ‘취하고 버림’을 말합니다. 생활하다가 고와 낙이 오면, 우선 ‘고가 왔구나, 낙이 왔구나’ 마음을 챙기며 ‘지금 이 고가 변하여 낙이 되는 고인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낙인가?’라고 바르게 판단하여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취사’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울여름 날씨는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늘 수행하는 자세로 일상을 산다면, 다소 더운 날씨라도 진리에 순응하고 그 계절과 하나되는 마음이 되어 더위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7월은 매사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공부로 한 마음 챙기는 달이 되길 염원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고틉(苦) 락(樂)의 연속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항상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즐거움은 취하고 괴로움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와 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연속되는 것, 그 자체가 삶입니다.

성공한 한 가수가 “자신의 직업이 장대높이뛰기와 같다”며, “가수



법회안내

- 1부 법회 매주 수요일 12:40
- 2부 법회 매주 수요일 16:00
- 영양팀 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09:40 (장소: 교직원 식당)

☎ 063) 859-0012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민 건강과 의학발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병원발전기금 모금안내

원광대학교병원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보내주시는 발전기금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기부자의 송고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 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 발전기금 안내**
- 원광대학교병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문의 원광대학교병원 총무팀 발전기금 담당
TEL. 063) 859-2063

기부자 예우

- VIP카드 발급 혜택: 전용 창구 개설 및 무료주차
-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 구분 | 의료비 감면 | | | | | |
|---------|-------------------|----------------|----------|----------|----------|---------|
| | 건강검진 | 진찰료 | 본인부담금 | | VIP카드 | |
| 누적 기부총액 | 대상 | 본인(배우자 및 직계포함) | 본인(배우자) | 본인(배우자) | 본인(배우자) | 본인(배우자) |
| 10억 |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 무료(무료) | 무료(무료) | 무료(무료) | 무료(무료) | 발급(발급) |
| 5억 |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 무료(무료) | 50%(50%) | 50%(50%) | 50%(50%) | 발급(발급) |
| 3억 | 기부금액의 10% 이내 (동일) | 무료(무료) | | | | 발급(발급) |
| 1억 | 기부금액의 10% 이내 | 무료 | | | | 발급 |
| 5천만원 | 기부금액의 10% 이내 | 50% | | | | 발급 |
| 1천만원 | 기부금액의 10% 이내 | | | | | 발급 |
| 5백만원 | 기부금액의 10% 이내 | | | | | |

호남권 대학병원 최초!

최첨단 디지털 PET/CT 가동



암·치매·파킨슨증후군·심장질환
조기 정밀진단 가능

문의 : 핵의학과 외래 063-859-1830,1835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사회적 위기에 가장 먼저 대처하는 **헥사곤**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갖추고 중증 심·뇌혈관환자, 중증외상환자, 중증응급환자, 정신응급환자,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닥터헬기 운용 등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6각의 완벽한 그물망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응급 상황이든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완결형 응급체계를 완성하였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신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국가, 인류 건강을 선도하는 Global Leading 병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 | | | | |
|-----------|--------------|---------------|----------------|------------|--------------|
| 종합건강증진센터 | 063)859-1122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063)859-1991 | 권역응급의료센터 | 1577-3773 |
| 권역외상센터 | 063)859-1188 | 응급의료전용헬기 | 063)837-8335 | 고압산소치료실 | 063)859-1069 |
| 암센터 | 063)859-1180 | 진료협력센터 | 063)859-2585 | 국제진료협력센터 | 063)859-0123 |
| 신생아집중치료센터 | 063)859-1506 |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63)859-0050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 063)859-1375 |
| 전북금연지원센터 | 063)859-2400 |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 063)859-0066~9 | | |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